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부처 키우는 일이다." 천운 스님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는데, 그런 아이들이 150명을 넘는다. 후학들과 아이들은 천운 스님을 엄격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고 회고했다.

# 현대적 포교, 불교교육법 전형 제시한 선지식

투 쓰면 안된다. 무소유로 살아라. 여자관계 철두철미해라"는 세 가지를 간곡히 부탁했다. 은사스님 역시 엄하지만 자비로운 분이였다. 천운 스님은 생전에 은사스님에 대해 "어른이 넘어서 마흔이 넘은 제자를 비행기 태우며 놀 정도로 허물이 없고 자비로운 분이였다"고 회고했다.

### #전단지 배포 등 현대 포교의 귀감

천운 스님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활약하는 한편 군승이 없는 군에서 불교도임을 이끌며 군내 포교를 담당하기도 했다. 군에서 제대하고 은사스님이 입적한 뒤 천운 스님은 조계산 토굴, 도갑사·대흥사·선운사 선원 등에서 10여 년간 참선을 했다. 특히 스님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 처음 선방을 열어 3~4년 묵언정진을 해냈다. 당시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목에 '묵언패'를 걸고 정진해 이후 묵언정진하는 수좌들의 길잡이가 됐다. 당시 공부를 하는 한편 구례 화엄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정진 대중을 의호하는 등 이후 포교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토굴과 선원 등지에서 가행 정진하던 스님은 스스로 깨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널리 펴고 제대로 된 제자를 키워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려는 원력을 갖고 광주 상무대 근처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향림사를 열었다. 이 때가 1971년이였다. 스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고 가는 길'이라는 포교지를 만들어 나누어주며 불법을 알렸다. 천막포교당을 세우고 불교 전단지를 배포하는 포교 방법이 서울과 수도권에 등장한 것은 이보다 10여 년 뒤였으니 스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짐작케 한다.

### #시은 갖기 위한 세가지 보살행 진력

천운 스님은 포교를 시작하면서 신도들의 시주를 갖는 길을 고민하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학교를 가지 못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 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되는 것이었다. 셋째는 아픈 사람을 위한 문병이었다. 스님은 이 세가지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다. 스님의 교육열이 강해 향림사에서 학기 초 등록금만 1억원이 넘게 지불했다. 장애인들에게 쉼 곳을 마련해준다 아예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었으며 아픈 사람을 마음 놓고 치료하기 위해 한때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돈은 모두 스님이 전국의 대중들과 만나 법문하고 절 살림을 아껴 모은 소중한 정재였다. 스님은 향림사에서 찬불가를 보급하고 어린이·중고생 법회를 열었다. 또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되는 대 사건들이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당(天雲堂) 상원(尙遠) 대종사(大宗師)는 호남불교를 일으킨 개척자이며 현대 도심 포교, 불교 교육, 복지의 물꼬를 트고 방향을 정립한 선각자였다.

1932년 1월 1일 전북 고창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천운 스님은 해방이 됐을 때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완고한 할아버지는 신학문을 부정하고 한학을 고집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부러웠던 스님은 서울로 도망쳐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집을 떠났다가 마침 길에서 비구니 스님을 만나 정읍 내장사로 가게 됐다. 그때가 16세였다.

내장사에서의 첫 새벽 스님은 도량석으로 울려 퍼지던 <화엄경> '약전계'의 청아하면서도 절절한 염불소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날 스님은 박한영 스님을 만났다. 당시 팔손의 노스님은 소년의 사연을 듣고 절에서 글을 배우며 중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천운 스님은 그 때부터 한영 스님의 시자로 절집 생활을 시작했다. 노스님의 공양상을 챙기고, 죽간으로 모시며 목욕을 시켜 드리는 일 등 고된 시봉을 하면서 아침저녁 예불과 <조발심자경문>을 배웠다. 한영 스님은 그를 친손자처럼 아끼고 귀여워했다. 스님은 한영 스님 이불 밑에서 '할아버지'라고 안기며 잠을 잤다. 천운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영 스님의 수행과 불교관과 품성, 미래를 읽는 혜안을 배워 후일 천운 스님으로 하여금 호남 불교 중흥의 주역을 담당케 했다.

내장사 생활 1년 만에 한영 스님이 입적하자 천운 스님은 평창 월정사로 옮겨 은사인 이종욱 스님(1884~1969)을 만난다. 스님은 이종욱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이종욱 스님을 12년 동안 모시면서 천운 스님은 무소유의 삶과 포교의 가르침을 배웠다. 스승은 젊은 천운 스님에게 "포교하는 사람은 감

다고 했다. 천운 스님은 그 때부터 한영 스님의 시자로 절집 생활을 시작했다. 노스님의 공양상을 챙기고, 죽간으로 모시며 목욕을 시켜 드리는 일 등 고된 시봉을 하면서 아침저녁 예불과 <조발심자경문>을 배웠다. 한영 스님은 그를 친손자처럼 아끼고 귀여워했다. 스님은 한영 스님 이불 밑에서 '할아버지'라고 안기며 잠을 잤다. 천운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영 스님의 수행과 불교관과 품성, 미래를 읽는 혜안을 배워 후일 천운 스님으로 하여금 호남 불교 중흥의 주역을 담당케 했다.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http://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031-766-0802  
(주)현대불교신문사